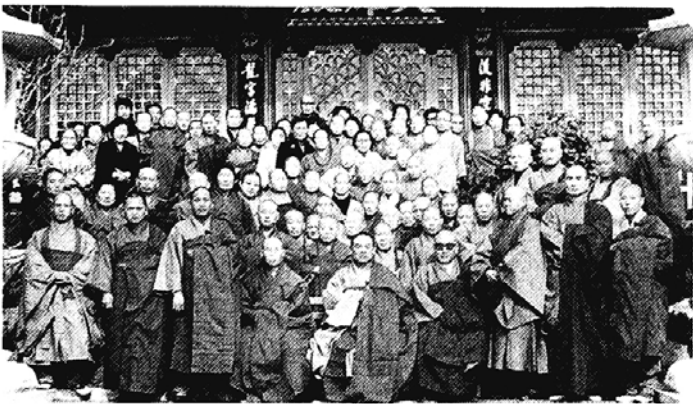


큰스님 수행한담

온갖 번뇌 생겨요”



70년대 중반 부산 묘관음사에서 운봉스님의 추모재를 지내고,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해운스님, 그 옆부터 월산·항곡·월안·진재 스님.

죽이고 살리고 주고 빼앗고 거두고 놓음을 자유자재로 하셨습니다.

6·25전쟁이 나던 해 겨울 천성산 내 원사에 있었고, 선암사와 예산 수덕사 선방 그리고 월내 관음사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많이서인지 공부할 여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중스님들이 공양주와 채공을 자주 맡겨요. 요즘은 여성도가 채공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에는 공부하는 절에는 여자들이 열심도 못했기에 스님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부산 선암사에 있을 때입니다. 화두를 얻으려 항곡스님이 계시는 조실방으로 걸려도 해도 용기가 나질 않아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화두를 얻으려

“담금질 오래한 칼 견고하듯 오래 단련시킨 수행자 옛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 둘째는 정수리에서 방광하여 천하를 두루 비추고 모든 것을 환하게 아는 것이니 이것은 '금강눈동자(金剛眼睛)'입니다. 셋째는 쇠를 다루어 금을 만들고 금을 다루어 쇠를 만들어 갑자기 잡았다가 갑자기 놓으니 이것은 '주장자'입니다.

넷째는 천하사람들의 허물을 놓리지 못하게 하고 습도 쉬지 못하게 한다든 거꾸로 삼천리를 물러가는 것이니 '도량(氣宇)'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문수보현보살과 천하선지식이 이 세상에 모두 함께 출현하시어 대공명을 받고 한량없는 삼매와 방편과 방편과 신통으로 대법륜을 굴러 한순간에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 하여도 논하나 잠깐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니 이것은 '특별수용경지(封疆處)'입니다.

이상의 삼매 하나하나를 모두 밝게 증득하여 어디에서나 자유자재하여야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지요.

때 그 열정과 배기를 가지고 수행하면 더 잘 이룰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수행이란 아무런 안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의 행태를 속인들이 본받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스님들이 속인들의 행태를 좇아가고 있어요. 선거하는 모습도 그렇고 한번 당선되면 내놓지 않으려는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은사 스님은 선학원이사장을 두번이나 했지만 몇개월정도 하다 내버리고 떠났습니다. 죽을 날이 다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달려서야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잦은 종권쟁탈과 갈등이 심해지면 절집안이 불안해지고 어수선해지기 마련이어서 불자들만 손해입니다. 후보자끼리는 앙숙이 되고 말입니다. 추대 형식이 아닌 선거제도는 정말 본받을 게 못되는 것 같아요.

최근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이 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총무원장 자리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퍼기 위해 심부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고귀한 자리에 나아가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본분과 본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까?

넓은 포용력으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종권쟁탈의 이전투구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신심명>의 첫 구절을 보면 "지도무년(至道無難)이요 유열간택(唯難兼擇)이니 단막중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나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진대 어찌 남을 헐뜯고 비방하겠습니까.

절집안 풍토도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스님들은 절안에 있지도 못해요. 북한통포를 들고 실직자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집안의 어른들을 먼저 존중해야 그 집안이 잘됩니다. 평생 수행을 정진해온 중단의 노스님들이 속삭이 어려워 이곳저곳을 떠돌다면 그 어찌 자비문종이라 하겠습니까.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n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정행 <장호원 컨트리클럽 사장>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어렵거나 힘든일이 있을때면 부처님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내 수행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꼭 어느 절에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일도 회사일도 원만하게 해결해 내고자 항상 기도를 한다.

남편의 장기이식수술이 수포로 돌아갔을때에도 나는 남편과 함께 경기도 천보산 불암사에 들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무조건 남편의 병을 낫게 해 달라는 기복이 아니라 남편이어서 육신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로 병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병원에서는 몸을 가누지도 못해 사람들이 부축해야만 겨우 발을 내딛어 걸을 수 있었던 남편은 기도를 시작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매일 한시간 정도 산행을 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보이

수술에 앞서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어주고 수술실에 들어갔고, 20명의 의료진이 집도한 그 긴 수술은 성공을 거뒀다. 사실 간이식 수술은 올해 초 뇌사판정의 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몇몇 사람이 새생명을 얻었지만 몇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고, 몇사람은 수술 거부반응으로 삶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수술전 남편에게 고통스러울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라고 알려주었고, 남편은 그 덕분에 진통제를 거부하고도 아픔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 성심으로 명호만 불렀고 능히 고통을 여의게 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력으로 남편의 몸은 수술후 3주만에 거의 회복될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후 남편은 "내 인생은 49세로 마감되었고 이제 나는 1살로 다시 태어났다"라며 새로운 인생을 나에게 보

“나는 항상 기도한다...기도의 힘을 믿는다 기복이 아닌 정진하는 마음을 위해”

게 됐다. 매일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보 내던 중 남편은 꿈에서 부처님을 받고 새 삶을 얻는 선몽을 하게 되었다. 친정어머니의 고회로 고향에 내려갈 준비중이던 나에게 이식수술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삼성의료원 간이식센터에서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면 서 밤늦게 불암사로 전화가 왔다. 삼성의료원 측에서는 또한번 실망을 주지않기 위해 완벽한 수술준비를 마친 후 다음날 아침 간이식을 위해 병원으로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해주었다. 그 연락을 받고 나는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때가 바로 올해 4월 3일이었다.

답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이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신것은 이 세상에서 아직 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자신의 생명을 남편에게 베풀어 준 기증자의 뜻 역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라는 고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던가. 나 역시 남편을 도와 덩으로 사는 삶을 더욱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왕삼매론>의 "병고로써 양약을 삼아라"라는 교훈이 세상 내 가슴속에 와 닿는다. 남편의 병을 함께 겪으며 그 힘들었던 일이 내게는 귀한 수행의 체험이 되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정진한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

“승가의 자리싸움 출가 본뜻 어기는 일 스님들이 속인의 행태 좇아 가셔야...”

는데 어찌 두려움과 망설임이 없었겠습니까. 스님은 황벽스님과 임제스님간에 벌어진 선문담을 통해 화두를 내려주셨습니다.

황벽스님 문하에 1천2백여명의 대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목주스님과 임제스님이 계셨습니다. 목주스님은 임제스님이 하도 친견해보여 접근을 했습니다.

"스님,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목주스님이 다시 "황벽스님을 친견하셨소?"라고 묻자 임제스님은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임제스님은 물어볼 만한 체합이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조실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주스님은 일러준대로 여쭙보라고 하면서 '여하시불법적적대의(如阿是佛法的的大意)'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와서 지켜보곤 하셨습니다. 화두를 타파해야 스승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하면 단박에 깨달아야지, 생각하고 따지면 벌써 본질에서 만나 멀어지고 천가닥이나 어긋나고 만다. 생사심(生死心)을 완전히 타파하면 무수한 세월동안의 근본 무명업식과 번뇌가 일순간에 녹아 없어져 저절로 밝아옵니다. 그때에는 보리니 부처니 법이니 하는 소견도 사라져 여여적멸해지니 비로소 자유자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다섯가지의 소중한 삼매법문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간의 경계를 꼭 다잡아 터럭만큼도 새어나가는 것이 없게끔 하는 세상사람들이 허를 뚫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른 명령'(正命)이니

범사자 원음로, 도리사 태조선원, 오대산 선원사에서도 공부하다 61년 10월에 동화사 열불암에 와서 절도 새로 짓고 한 20년 가까이 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해인사 백련암에 있을때는 아직 20세가 되기 전이었는데 공양주 해가면서 용맹정진한답시고 백일기도 1천일기도 등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장삼을 입은 채로 잠시 한다고 드러누웠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뒷방에 와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정진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진도 역시 젊을 때 해야 그 기상이 씩씩하고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나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들어 여유경건히 수행해야지, 또는 젊을 때는 바쁘게 일해야 하니까 나이들어 열심히 수행하자 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젊을

Advertisement for 'Il-Sim-Sok-Jae' (일·심·석·재) featuring stone products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im Ok-su.

Advertisement for 'Sinbi's Maesan Pilgrimage' (신비의마이산탐사) featuring a scenic view of Maesan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Jinan Maesan Pilgrimage.